



# 위기의 지상파 수목극 ... 생존 경쟁 치열

‘죽어야 사는 남자’·‘다시 만난 세계’ 등 드라마, 시사프로그램에 완패

26일 tvN ‘크리미널 마인드’ 가세 ... 라디오스타·해피투게더 등과 맞대결

tvN이 오는 26일 수목극을 론칭하면서 드라마 시청에 또다른 변화가 시작된다.

수목극은 전통적으로 방송사들이 가장 힘을 주는 드라마로, 호화 캐스팅에 따른 ‘별들의 전쟁’이 이뤄지는 시점이다.

tvN은 월화극처럼 수목극도 밤 10시50분에 편성해 지상파 3사와의 정면 대결은 피했다.

그러나 tvN이 젊은층에 화제성이 높은 채널이고, 첫 수목극으로 내세운 ‘크리미널 마인드’가 대작인 만큼 지상파 3사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가 밤 11시에 편성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비상이 걸렸다.

광고 시장 약화에 시청률 부진으로 광고 판매에 허덕이고 있는 지상파는 tvN이 수목극 시장에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게 됐다.

◇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뒤진 지상파 수목극= 최민수, 여진구, 이연희, 이동건, 연우진, 박민영이 등장했지만 현재 지상파 3사 수목극은 경쟁력이 높지 않다.

지난 19일 나란히 새롭게 선보인 MBC TV ‘죽어야 사는 남자’, SBS TV ‘다시 만난 세계’와 기존에 방송 중이던 KBS 2TV ‘7일의 왕비’는 모두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 시청률이 뒤졌다.

‘죽어야 사는 남자’는 9.1%-9.1%, ‘7일의 왕비’는 6.7%, ‘다시 만난 세계’는 6.0%-7.5%로 집계됐으며, ‘생로병사의 비밀’은 9.5%로 나타났다. 큰 격차는 아

니지만, 수목극이 모두 ‘생로병사의 비밀’에 뒤진 것은 지극이다. 작년 5~6월에도 한달 남게 3사 수목극이 ‘생로병사의 비밀’에 일제히 밀리며 굴욕을 맞았는데 1년 만에 같은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이날 ‘생로병사의 비밀’은 ‘요요없는 다이어트의 비밀’을 방송하며 전주의 6.8%보다 2.7%포인트 시청률이 뛰었다. 스타 플레이어가 출연하는 드라마들이 다이어트의 비밀을 내건 건강 프로그램에 뒤진 것이다.

최민수의 집 캐시미어 코미디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죽어야 사는 남자’는 발칙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코미디지만, 자칫 최민수의 1인극이 돼버릴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풋풋한 첫사랑의 감성에 기댄 ‘다시 만난 세계’는 판타지 로맨스가 새롭지 않은 상황에서 여진구와 이연희가 제대로 조화를 이룰지 두고봐야 한다. 종영까지 4회가 남은 ‘7일의 왕비’는 중종과 단경왕후의 애절한 로맨스가 연산군의 광기에 잡혀버린 게 패작으로 지적되고 있다.

◇ tvN ‘크리미널 마인드’의 파장은= tvN의 첫 수목극 ‘크리미널 마인드’는 동명의 인기 미국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액션 수사극이다. 2005년부터 13년째 200여 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며 전 세계에 팬을 거느린 원작 드라마의 지명도에 손현주, 이준기, 문채원이라는 스타를 캐스팅해 관심을 끈다. 또 블록버스터 액션 드라마 ‘아이리스’ 시리즈를

성공시킨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고, 영화감독 양윤호가 연출을 맡아 방송가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올해 안에 수목극을 론칭하겠다는 계획은 세웠으나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던 tvN은 여름밤 시청자에게 시원한 액션을 선사하고, 추석 연휴 전 한 편의 드라마를 끝낸다는 편성 계획에 따라 ‘크리미널 마인드’를 26일부터 방송하기로 했다.

규모가 큰 기대작 ‘크리미널 마인드’가 밤 10시50분에 편성되면서 지상파의 시청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밤 11시에 끝나는 방송 3사 수목극의 끝 부분과 맞물리는 데다, 11시대 편성되는 예능 프로그램과 맞붙기 때문이다.

MBC TV ‘라디오스타’, KBS 2TV ‘해피투게더’, SBS TV ‘자기야’가 대표적으로 ‘크리미널 마인드’와 맞대결하게 된다. 또 JTBC의 ‘한끼줍쇼’와 ‘철전’도 영향권에 놓인다.

드라마에 대한 애정이 높은 국내 시청자들의 특성상, 팬층은 드라마 한편의 파장을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무엇보다 광고 수주에 따른 방송사의 생존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상파 3사는 생존의 한 방편으로 지난 5월 비난을 무릅쓰고 중간광고 격인 ‘프리미엄CM’(PCM)을 드라마에도 도입했지만, 현재 판매 실적이 신통치 않다.

이렇다 할 히트작이 없어 PCM 판매도 저조한 것. 많은 드라마가 틀면 틀수록 방송사에 적자를 안기는 구조에서 tvN마저 수목극을 선보이면서 방송사의 사활을 건 광고 판매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됐다. /연합뉴스

## “슈퍼맨’ 김병만 쾌유를 빕니다”

美 스카이다이빙 훈련 중 부상  
수술 성공적 ... 1~2주 후 귀국

최근 미국에서 스카이다이빙 훈련 중 크게 다친 개그맨 김병만(41·사진)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이다.

김병만의 소속사 SM C&C 관계자는 23일 “김병만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잘 회복하고 있다”며 “1~2주 후에는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병만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0일 미국에서 스카이다이빙 훈련을 하던 중 랜덤 사고로 척추가 골절됐다. 다행히 신경에 손상은 없었지만 현지에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김병만의 부상으로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SBS TV 예능 ‘주먹쥐고 뱃고동’이 촬영 스케줄에 비상이 걸렸다. ‘주먹쥐고 뱃고동’ 팀은 22일 방송 말미에 그동안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김병만의 영



상을 띄우며 “늘 새로운 것에 도전했던 그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주먹쥐고 일어세!”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연출을 맡은 이영준 PD는 “김병만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란 걸 알기에 금방 훌쩍 털고 ‘슈퍼히어로’처럼 일어날 거라 믿는다”고 응원했다. /연합뉴스

## 시청률 5% ‘최고의 한방’ 아쉽게 막내려

‘예능 전문’ 유호진 PD와 배우 차태현의 첫 드라마 연출 도전이 여러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다.

2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KBS 2TV 금토드라마 ‘최고의 한방’(사진)의 전국 평균 시청률은 31회 5.3%, 32회 5.4%를 기록했다.

마지막회에서는 시간 여행을 마친 유현재(윤시윤 분)가 최우승(이세영)과 2017년에 다시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최고의 한방’은 시작 전부터 시끌시끌했다. 유호진 PD와 차태현이 연출을 맡았다는 점, 과거 드라마 ‘프로듀사’를 성공시킨 서수민 PD가 총지휘를 맡은 점 등이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실제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고, 화제성에서도 점점 밀렸다. 금·토요일 밤 11시 시작이라는 핸디캡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선 1990년대 최고 스타 현제가 2017년으로 시간을 건너뛰었다는 설정부터 새롭지 못했다.

무현재의 타임슬립을 중심으로 한 미스터리는 이지훈(김민재), 최우승, MC드림(동현배) 등 20대 청춘의 현실을 담은 스토리와 잘 융합되지 못했다. 특히 현제가 지훈을 아들로 알면서도 우승을 두고 삼각관계를 이루는 스토리는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출연 배우 중 한 명인 윤순하가 자녀 학교 폭력 문제에 휘말리면서 시청률 부진이 계속됐다. 다만 주말 밤 극이 너무 무겁게만 흐르지 않도록 곳곳에 배치한 웃음 포인트는 재기 발랄한 시도였다는 평을 받았다. /연합뉴스



(동현배) 등 20대 청춘의 현실을 담은 스토리와 잘 융합되지 못했다. 특히 현제가 지훈을 아들로 알면서도 우승을 두고 삼각관계를 이루는 스토리는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출연 배우 중 한 명인 윤순하가 자녀 학교 폭력 문제에 휘말리면서 시청률 부진이 계속됐다. 다만 주말 밤 극이 너무 무겁게만 흐르지 않도록 곳곳에 배치한 웃음 포인트는 재기 발랄한 시도였다는 평을 받았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결여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좋은 아침
10	00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국회 인사청문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11		00 살림하는남자들 (재)		
12	00 KBS 뉴스12	00 학교 2017 (재)	00 MBC 정오 뉴스 20 왕은 사랑한다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열린공간 토크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재)		25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55 닥터 365
2	50 콘서트 필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15 텔레몬스터 25 푹?푹! 키즈스쿨 55 지오메카	00 뉴스브리핑
3	30 공감다큐, 사람(재) 50 팔도밤상 스페셜	00 자몽부채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별별머느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MBC 뉴스M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뉴스 10 MBC스포츠 2017 세계수영선수권대회	00 SBS 오 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생방송 빛남	10 조작 미라보기 45 날씨와 생활 50 교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라!라다
7	00 KBS 뉴스7 35 여름특집 6부작 그섬에 살고 싶다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학교 2017 1-2회 특별판	55 별별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왕은 사랑한다 한번에 몰아보기	
10	00 가요무대	00 학교 2017	00 왕은 사랑한다	00 조작
11	00 KBS 뉴스라인 40 월요기획 3부작 영상포럼, 아시아의 소리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평창동계올림픽 G-20 기념행사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 24 30 MBC스포츠 2017 세계수영선수권대회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00 요술 상자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맛기행 - 하노이 음식탐험>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5 내 친구 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코카스에 변하다 사람과 자연과 신의 나라 조지아>
06:0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20 우주탐험가 셋	21:30 한국기행 <숨겨진 계곡 - 수하에 놀다>
06:2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자 보리밭과 참외장아찌)	15:35 모피와 친구들	21:50 EBS 다큐 프라임 <100세 소크 관찰기록 100세의 사생활>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5 코코콩 3	22:45 엄마를 찾지마
07:3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두다다콩(재)	23:35 까칠남녀
07:45 출동! 슈퍼왕스 -한국에 신다	12:10 글로벌 가족특파기 -한국에 신다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모비딕)
08:00 덩둥땡 유치원 1~2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15 얼마 깨트리	24:30 세계의 드라마 <폴락3>
08:30 꼬마버스 타요	12:45 과학 다큐 비온드 (재)	17:30 플라워링 하트(재)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40 얼마를 찾지마(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셜피어 파이오로보	
		19:3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4일(음 6월 2일 壬子)

<b>子</b>	48년생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 성과를 도출하겠다. 60년생 취약점을 보완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니라. 72년생 적당히 분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4년생 변화없이 일관되게 진행한다면 소기의 목적에 이른다. <b>행운의 숫자 : 80, 73</b>	<b>午</b>	42년생 외인에 주목하라. 54년생 보람도 느낄 것이다. 66년생 똑 같은 양상이라도 수용하는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78년생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당분간 함께 하자. 90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역동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 <b>행운의 숫자 : 62, 14</b>
<b>丑</b>	49년생 불행리함에 대한 걱정이 시급하니 머무지 말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 61년생 통념과 상식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73년생 절제된 행상을 가져 올 것이다. 85년생 상당한 동력이 발생할 것이다. <b>행운의 숫자 : 61, 62</b>	<b>未</b>	43년생 분명한 태도를 보여라. 55년생 확대 해석에서 전방위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67년생 적용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겠다. 79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매끄러운 기저이다. 91년생 쿡-레가 나올 것이다. <b>행운의 숫자 : 18, 10</b>
<b>寅</b>	50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판세로는 미약하다. 62년생 시기를 놓치고 나면 여러 가지가 지장이 많을 것이다. 74년생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난국에 봉착할 수 있다. 86년생 지대한 전착을 보이겠다. <b>행운의 숫자 : 12, 86</b>	<b>申</b>	44년생 기본적인 사항이나 탄력적으로 대처하자. 56년생 만남과 교류 속에 발전을 이끄는 정보가 있다. 68년생 상충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을 알라. 80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라. <b>행운의 숫자 : 04, 75</b>
<b>卯</b>	51년생 원래 마음먹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63년생 리듬을 잘 타야만 무탈하다. 75년생 직접적이 지 않다면 나서지 마라. 87년생 여러 가지가 동시에 속출하는 흐름이다. <b>행운의 숫자 : 03, 91</b>	<b>酉</b>	45년생 당황하지 말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합당하다. 57년생 자연스러움이 합리적으로 작용하리라. 69년생 먹구름 사이를 헤집고 희망의 붉은 해가 치솟는다. 81년생 처리리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b>행운의 숫자 : 40, 32</b>
<b>辰</b>	52년생 상대의 저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64년생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올 것이다. 76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88년생 확실한 아령이 필요한 때이다. <b>행운의 숫자 : 93, 30</b>	<b>戌</b>	46년생 시종일관 빈틈없이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만 할 것이니라. 58년생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70년생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다뤄져야 한다. 82년생 조건을 구비해야 추진력을 갖게 된다. <b>행운의 숫자 : 47, 22</b>
<b>巳</b>	53년생 묵묵히 진행하다 보면 의외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65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제일 견고한 제방이 된다. 77년생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89년생 목표에 이르기 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b>행운의 숫자 : 12, 06</b>	<b>亥</b>	47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59년생 노력에 비해 효과는 별로이다. 71년생 주관이 사로잡힌다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83년생 상대의 속셈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b>행운의 숫자 : 65, 24</b>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